



보도시점 2024. 3. 9.(일) 11:00
< 3.10.(월) 조간 >

배포 2024. 3. 7.(금)

산단내 디지털, 에너지 시설 등 총 1조원 투자

- 정부예산 1,17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9,427억원 유치 전망
- 비수도권 산단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근로자 정주 시설 중점 투자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임대형 기숙사업무 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근로·정주 시설 확충에 총 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개 사업을 올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최초로 조성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 친환경화, 디지털화,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11~'24) 정부재원 1조 3,400억원으로 민간투자 8조 1,824억원을 유치, 70개 사업 추진 중

올해 선정된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여 산단의 저탄소화를 지원하는 연료전지발전(익산제2일반산단), △디지털 전환(DX)의 핵심인프라인 데이터센터(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산단 내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형기숙사업무 복합시설(익산국가산단), 호텔·물류 복합시설(서울디지털국가산단), △신산업으로서 작년 11월 처음으로 산단 내 입주가 허용된 스마트팜(원주문막일반산단) 등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5개 산단에 정부예산 1,170억원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 597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개가 부산, 원주, 익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료전지발전과 스마트팜 2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운영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시설, 장기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다.

산업부는 펀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자산운용사, 사업자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신현우 (044-203-4432)

참고

'25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 대상사업(5개)



① (부산명지녹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 : 6,500억원(펀드 308 / 민간 6,192)

사업기간 : 2025.06 ~ 2033.07

연 면 적 : 46,107.49m²(13층)

도입시설 : 데이터센터(25MW)

기대효과 : 산단 디지털화 및 업종고도화



② (서울디지털) 호텔·물류 복합개발사업

총사업비 : 2,370억원(펀드 430 / 민간 1,940)

사업기간 : 2025.07 ~ 2035.07

연 면 적 : 41,729.16m²(19층)

도입시설 : 숙박시설, 컨벤션, 물류, 근린생활

기대효과 :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③ (원주문막일반) 스마트팜 운영사업

총사업비 : 200억원(펀드 150 / 민간 50)

사업기간 : 2025.04 ~ 2040.12

연 면 적 : 17,839m²

도입시설 : 스마트팜(재배시설, 냉장창고 등)

기대효과 : 신산업 유치를 통한 업종 다변화



④ (익산제2일반) 연료전지발전 운영사업

총사업비 : 926억원(펀드 181 / 민간 745)

사업기간 : 2025.03 ~ 2046.03

부지면적 : 6,410m²

도입시설 : 연료전지발전소(15MW 규모)

기대효과 : 친환경 에너지시설 확충



⑤ (익산) 임대형기숙사·업무 복합개발사업

총사업비 : 600억원(펀드 120 / 민간 480)

사업기간 : 2025.05 ~ 2033.08

연 면 적 : 15,863.80m²(6층)

도입시설 : 임대형기숙사, 업무시설, 근린생활

기대효과 : 정주 및 근로 환경 개선